버스 노선 하나에 광주·전남 상생 '헛바퀴'

광주버스조합 운행규정 위반 신고로 나주 999번 과태료 폭탄

나주교통 맞소송 검토…양 지자체 지역업체 두둔 갈등 키워

농어촌버스 '한 대'로 광주·전남 상생이 멀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강제 조정을 거쳐 광주구간 노선이 확대된 나주지역 농어촌 버스(999번)를 둘러싸고 광주시내 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나주교통이 볼썽사나운 다툼을 계속하면서다.

황금노선을 빼앗겼다는 불만을 품은 광주 버스조합 측이 나주시를 상대로 노선 변경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광주일보 8월29일자 6면>한 데 이어 999번 버스 규정 위반을 무더기로 신고해 과태료 폭탄을 안겼고, 나주교통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광주시와 나주시가 지도·감독권을 내세워 다툼을 중재해 통큰 양보를 이끌어내기는커녕 물밑에서 지역업체를 두둔하며 상대 지자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갈등을 되레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광주시와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와 광주를 오가는 999번 버스가 운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한달여 만에 84건 접수됐다. 이 버스는 나주 혁신도시를 거쳐 광주역까지 운행했지만 노선 변경을 거쳐 지난달 22일부터 조선대, 전남대 등을 경유하게 됐다.

'황금노선을 잠식당한다', '한번 뚫리면 인접 시·군 버스에 또 뚫린다'는 광주 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노선 협의가 무산돼 국토교통부 노선 조정위원회의가 강제 조정에 나선 끝에 노선 변경이 인가됐다.

중재 방안으로 정류장 수를 줄여 통상 3개 정류장 가운데 1곳 정도 멈춰서야 했지만 나주교통 측이 이를 어기고 정차할 수 없게 돼있는 정류장에 버스를 세운 사실이 신고되면서 고액의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징금은 건당 100만원이다.

광주 버스조합 측은 조합원들과 함께 권역별로 운행실태를 감시해 위반 장면을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나주시청에 대거 제출했다.

나주시 측은 나주교통의 규정 위반이 명백해 보인다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 버스조합 측이 작심하고 정류장 감시에 나서 과징금 폭탄을 안긴데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승하차 요구를 거부하면 결국 민원으로 되돌아 규정위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나주교통 측 해명이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태료 폭탄을 맞은 나주교통 측도 광주 버스조합을 상대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 조정과 나주시 인가를 통해 적법하게 광주구간을 달리는데도, 광주 버스조합 측이 버스 앞 부분에 '나주교통 광주 진입으로 시민 혈세 증가, 요금 인상' 등을 적은 현수막을 부착해 나주시가 마치 불법 운행을 하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는 것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교통 측 규정 위반이 명백해보인다"면서도 "노선 변경 이후 광주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할 줄은 알았지만 막상 예상대로 규정위반 신고가 무더기로 쏟아지다 보니 서운하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도 상생도 좋지만, 따져보면 나주교통 측 법규 위반 아니냐"면서 "나주시도 사전에 감시가 강할 것으로 파악했다면 더 엄격하게 업체를 지도 감독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홍도 해상 조업 中어선 화재 3명 사망

해경이 던진 섬광탄 2발 원인 가능성

외교적 파장 우려 속 감식 나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검문검색 과정에서 중국어선에서 화재가 발생, 중국인 승선원 3명이 사망했다. 단속 과정에서 해경이 중국어선 안에 섬광탄 3발을 던져넣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원 사망을 부른 화재가 섬광탄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외교적 파장도 우려된다.

29일 오전 9시40분께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km 우리측 배타적 경대수역(EEZ)내 중국 선적 유망어선 S호(102t급)에서 화재가 발생, 승선원 17명 가운데 14명은 해경에 구조됐다. 하지만 여모(30대), 양모(60대), 곽모(50대)씨 등 중국인 승선원 3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승선원 사망이 S호에 대한 해경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돼 사망에 대한 책임소재가 해경 측으로 판명날 경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목포 해경이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에 발사한 섬광탄 3발 중 2발이 터지면서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포해경 측은 해당 중국어선이 조업 허가를 받았는지, 법에서 정한 어획량을 넘지는 않는지 여부를 살피려고 접근하자 중국어선이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도주를 늦추려고 섬광탄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섬광탄 3발 중 2발이 중국어선 내에서 터진 것은 맞지만 단속 과정에서 수차례 섬광탄을 썼지만 화재로 연결된 사례가 없었다. 화재 감식 전에는 섬광탄이 선박 화재에 직접 연관성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해경은 30일 중으로 불이 난 중국 어선을 목포로 이동시킨 후 화재 감식에 들어가고, 숨진 선원들의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도 하기로 했다.

한편 화재 직후 해경 3009함은 자체 소화장비로 진화작업을 벌이면서 승선원 17명 가운데 14명을 함정에 옮겨 태우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색에 나서 이날 낮 12시께 기관실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등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3009함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받아온 3명은 이날 오후 3시 46분께 한국측 의사에 의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이들이 조타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기가 기관실로 스며들면서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내일 백남기 추모 국민대회

광주·전남 1000여명 상경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1000여명이 10월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는 고(故) 백남기 농민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한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투쟁본부는 29일 광주시 동구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륜적 경찰의 부검영장을 허가한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사법당국은 '경찰의 손에 사망한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0월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함께 할 것"이라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시도를 막아내는데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부검 반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투쟁본부는 29일 광주시 동구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부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000원 위조지폐 유통 일당 3명 구속

5000원짜리 위조지폐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은 29일 5000원권을 위조해 목포와 광주 세차장 등지에서 유통한 혐의(통화위조법 위반)로 김모(27)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000원권 5200장, 2600만원의 위폐를 만들어 목포와 광주에서 각각 12장과 26장 등 38장을 유통한 혐의(통화위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중에 위폐를 유통하기 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세차장에 설치된 동전교환기에 위폐를 넣어 동전이 교환되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차를 구해 타고다니거나 렌터카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폐로 동전을 바꿔 추석을 쇠려고 맘 먹었으나 경찰의 추적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자 남은 위폐를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1명을 추적 중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사시 폐지 합헌 반응

"로스쿨 정착 계기로"…고시생은 "유감"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시는 내년 2월 치러지는 '제58회 2차 시험'을 끝으로 사라지게 됐다. 명실상부하게 '로스쿨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조차 합헌과 위헌 의견이 5 대 4로 팽팽하게 맞선 데서 보듯 사시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는 사시를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이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은 "헌재의 사시 폐지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로스쿨이 정착되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정부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 성명을 내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전원 제도에 대해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기득권층의 법조권력이 대물림되는 음서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모텔 들어가는 여성들 촬영 돈 뜯으려던 40대 철창행

쌍나팔

○…불륜을 저지른 여성들에게 상대남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내 돈을 뜯어내려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1)씨는 지난 8월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화순군의 한 무인텔 주변에 세워둔 차량 안에 숨어 무인텔로 향하는 이모(여·35)씨 등 여성 2명과 그 커플들의 모습을 촬영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내 각각 500만원씩 요구한 혐의.

○…김씨는 불륜 커플들의 차량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2명의 여성에게 수십차례씩 사진을 보내 현금을 보내도록 협박했는데 피해자 이씨가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탄로나는 것도 무섭지만 협박남성의 요구를 한 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요구가 끝도 없을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덜미. /김형호기자khh@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 1050	1	화순군 화순읍 대리 102 대성베르힐 101동 12층 1204호 84.7722㎡	아파트	233,000,000 233,000,000	
2016타경 7799	1	서구 금호동 767 금호2지구도시공사2단지 아파트 204동 13층 1304호 59.94㎡	아파트	153,000,000 153,000,000	
2016타경 8525	1	북구 용봉동 1355-1 현대아파트 303동 9층 911호 84.97㎡	아파트	210,000,000 21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 781	2	화순군 춘양면 산간리 222-1 169㎡	대	6,151,000 6,151,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화순군 춘양면 산간길 89 37.6㎡ 제시외 가추 등 39.8㎡	단독주택		
2016타경 7461	1	광산구 삼도회룡길 74-1 73.15㎡ 부속건물 광[현황창고]24.84㎡ 돈사[현황멸실]5.60㎡ 제시외 화장실및창고 11.4㎡	단독주택	4,155,500 4,155,500	건물만매각.제시외건물포함.부속건물돈사매각제외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40	1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157-9 60㎡	답	2,840,000 2,840,000	일괄매각.토지만매각.제시외건물매각제외
		동소 158-7 11㎡[물건번호1: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	ㅁ동소 193-2 13㎡[목록4및인근지번[193-1]대지와일단의주거용부지로이용중.지적경계불명,정확한것은실측요]	도로	2,805,000 2,805,000	일괄매각.토지만매각.제시외건물매각제외
		동소 779-19 54㎡	대		
2016타경 781	1	화순군 춘양면 산간리 221 185㎡ 제시외 가추 등 154㎡	대	4,440,000 4,440,000	토지만매각.제시외건물매각제외
2016타경 2442	1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산44-2 8698㎡[선계중지분1/5전부.지분매각.분묘소재]	임야	3,479,200 3,479,200	공유자의우선매수권행사제한
	2	동소 산44-6 815㎡[목록1과지분동일.지분매각]	임야	423,800 423,8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3	동소 산44-7 1359㎡[목록1과지분동일.지분매각]	임야	842,580 842,58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4	동소 산50 13091㎡[목록1과지분동일.지분매각.분묘소재]	임야	5,236,400 5,236,4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5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138-2 1375㎡	답	22,275,000 22,27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3520	1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603 408㎡[정안수지분1/6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대	1,700,000 1,700,000	지분매각.토지만매각[제시외건물매각제외]
	2	동소 605-1 397㎡[목록1과지분동일.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전	727,870 727,870	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곡성군 석곡면 능파리 278-1 53㎡	답	413,400 413,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3773	1	나주시 노안면 구정리 34-5 691㎡[현황전]	답	47,790,000 47,790,000	일괄매각.제시외수목포함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28-8 1471㎡[현황전] 제시외 벚나무 등 27주	답		
2016타경 4080	1	나주시 대호동 338 3312㎡[김덕금지분2분의1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답	89,424,000 89,424,000	지분매각.현황답및일부구거.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16타경 5939	1	화순군 청풍면 차리 89-7 2970㎡	답	166,320,000 166,320,000	일괄매각.유리온실매각제외.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89-8 2970㎡	답		
2016타경 7355	1	영광군 백수읍 구수리 855-4 4011.8㎡	답	44,129,800 44,129,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831-6 7324.8㎡	답	80,572,800 80,572,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10139	1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197 3080㎡	답	1,641,640,000 1,641,640,000	현황전
2016타경 12975	1	남구 백운동 231-3 131㎡	대	2,880,709,100 2,880,709,100	일괄매각.수목[감나무약15주]및제시외건물매각제외
		동소 231-12 158㎡	대		
		동소 231-15 7㎡	전		
		동소 231-16 1191㎡	전		
		동소 231-18 101㎡	대		
		동소 231-19 61㎡	도로		
		동소 231-21 126㎡	대		
		동소 231-22 163㎡	대		
		동소 231-23 96㎡	대		
		동소 231-24 103㎡	전		
		동소 231-25 121㎡	대		
		동소 231-26 129㎡	대		
		동소 231-27 41㎡	도로		
		동소 231-28 83㎡	대		
		동소 231-32 115㎡	대		
		동소 231-36 93㎡	전		
		동소 231-37 31㎡	전		
		동소 231-44 4㎡	도로		
		동소 231-45 8㎡	도로		
		동소 236 637㎡ 제시외 창고 10.44㎡	전		
		동소 236-1 375㎡	전		
		동소 238-1 1104㎡	전		
		동소 240-2 1160㎡	전		
		동소 241-2 205㎡	대		
		동소 241-3 149㎡	전		
		동소 649-1 165.3㎡	대		
		동소 649-8 116.5㎡	대		
		동소 649-9 116.5㎡	대		
		동소 649-12 116.5㎡	대		
		동소 649-14 99.3㎡	대		
		동소 649-15 114.6㎡	대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6타경 7133	1	북구 무등로180번길12, 14층 1435호 21.70㎡	근린시설	21,000,000 21,000,000	
[기타]					
2016타경 1418 2016타경 62246 [병합]	1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105 1559㎡	창고용지	143,157,280 143,157,2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나동호와다동호사이냉동창고컨테이너제외].정회선지분1/4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339 나동호 166.38㎡ 제시외 펌프실 등 6.3㎡	창고시설		
		동소 339 다동호 117.18㎡	창고시설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106 809㎡	창고용지		
		나주시 노안면 금안1길 3 192.52㎡	제조업소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106-1 806㎡	창고용지		
2016타경 3520	4	곡성군 석곡면 온수리 76-1 264㎡	도로	2,640,000 2,640,000	
	5	동소 77-1 364㎡	도로	3,640,000 3,640,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16타경 3872	1	나주시 운곡동 175-16 6110㎡	공장용지	2,593,699,300 2,593,699,3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별지기계기구목록일부소재불명.매각대상아닌컨테이너소재.공장저당법6조기계기구목록참조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100-12 1634.87㎡[현황1,497.4㎡] 114.57㎡ 53.43㎡[현황기숙사와사무실을1동으로이용중] 창고431.25㎡[현황소재불명,매각제외] 부속건물 창고 13.25㎡[현황소재불명,매각제외] 제시외 차양 등 186㎡,기계기구목록참조	공장,기숙사,사무실		
		동소 100-12 5동호 1164㎡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10. 14. [금]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10. 21. [금]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9. 3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영수